민족문화연구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1)” 특집의 말

이번 특집 ‘일본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의 학술적 가치’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가와이문고에 대해 그동안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실은 것이다. 지난 4년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센터에서는 교토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조사하여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해제 작업 및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작업은 일본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일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가와이문고 한국고서목록』을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각각 출간하게 되었다. 아울러 2019년 2월에는 목록집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학자들이 참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의 주관하에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가와이문고의 주요 자료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학술대회의 성과를 2회에 걸쳐 수록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 가운데 일본 후쿠야마대학 명예교수인 후지모토 유키오 선생의 「가와이문고 개관」은 수십 년간 일본 각 대학 및 기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와이문고의 역사와 가치 및 그간의 연구 등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였다. 가와이문고가 어떤 경로로 형성 수집되었으며, 또한 어떤 문헌들이 가치가 높고 어떻게 연구 활용되어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와이문고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도 이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후마 스스무 선생은 연행사와 통신사 및 국제관계사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여기에 실린 논문은 1743년 심양에 사신을 다녀왔던 조현명의 연행록 자료를 새롭게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주요 내용을 살폈다. 스스무 선생은 일본 각 기관과 대학에 소장된 통신사 문헌들을 새롭게 소개하여 학계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는데, 이번에 분석한 조현명의 연행록 자료는 규장각에 소장된 『귀록집』에는 수록되지 않고, 가와이문고 소장 『귀록집』에만 수록되어 있는 유일본 자료이다.

고려대 심경호 선생의 논문은 가와이문고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금석집첩』을 다루었다. 200여 책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금석집첩』 수록 자료를 고려대에 소장된 목록과 대조하는 한편 『금석집첩』에 수록된 묘비문의 문체적 특징, 석비문, 묘도문자 탁본 등에 대해 새롭게 밝혀 주었다. 앞으로 『금석집첩』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